

도로 유출-반환-경복궁돌 40년 방치-시멘트 보수-보존처리 10년

# 기구한 운명, 5월 '새 역사'

## 경천사지 10층석탑, 용산 새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봉안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천사지10층석탑(국보 제86호)의 수난사에 끝이 보인다. 국립문화재연구원(소장 김봉건)에서 10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용산 새 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동관 로비에 동지를 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3월 2일~4일 부처 1차분 65점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으로 옮겨지는 등 이송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천사지석탑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했다. 1908년 일제시대 궁내대신 다나카 미스야키에 의해 불법으로 밀반출됐다가 1918년에 반환됐지만 경복궁 돌에 방치된 채 40여년을 보냈다. 1960년대 시멘트로 보수돼 세워졌지만 시멘트 부분의 풍화, 산성비, 조류 배설물 등으로 인한 훼손에 구조적인 불안정까지 겹쳐 1995년부터 보존처리를 위해 해체돼야 했다.

처음 탑이 건립된 기원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히다. 이 탑은 원나라에 환관으로 가서 황제의 총애를 받은 고옹봉(?-1362)과 원나라 승상 탈달(脫脫)에게 딸을 애첩으로 보낸, 대표적 친원 세력인 강홍(?-1349)

의 발원으로 1348년 건립됐다. 1층 탑신에는 원 황실의 안병을 기원하는 명문이 남아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3월 8일에 찾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근무)은 경천사지10층석탑 입주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탑이 복원될 동안 로비 '역사의 가로' 동편 지점에는 지진에 대비해 59cm의 면진대가 설치되고, 그 위에는 표층적으로 제작된 지대석이 놓여 있었다. 형태는 원각사지10층석탑의 것을 따랐다.

면진대는 탑이 실내에 설치된 지진 발생시 흠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4.5도 지진 발생시 탑의 7·8·9층에 충격이 미칠 가능성이 제기돼 면진대 설치 결정됐다. 면진대는 8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해준다. 면진대 제작에 소요된 비용만도 7억이다.

높이 13.5m, 무게 80t에 달하는 탑을 실내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건물 설계상의 배려도 필요했다. 탑 높이를 감안해 탑 설치 지점은 1층부터 천장까지 통하도록 설계됐다. 또 200t까지 견딜 수 있도록 건물 구

조도 보강했다.

동관의 복도적인 '역사의 거리'에는 이 탑 외에도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과 팔부신중상 8점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면 고달사지 석등은 '역사의 거리' 중심축에 있지만 경천사지10층석탑이 놓일 자리는 중심축에서 1m 가량 벗어난 곳에 마련됐다. 여기에는 이 탑을 우리 문화재의 '국가대표'로 삼을 수는 없다는 고민이 숨어 있다.

박물관 전시와 합숙팀장은 "이 탑이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유물이기는 하지만 원의 영향을 크게 받아 전통양식에서 이탈한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 약간 밀려난 지점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에서 보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을 피해 실내에 자리잡게 될 경천사지 10층석탑 가상도. 3층 높이 규모로 박물관의 명물이 될 전망이다. 제공=국립중앙박물관

존처리를 마친 탑의 부재는 세 차례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된다. 3월 2일~4일에 1차로 부처 65점이 이전된 데 이어, 3월 말경에 75점(3·4층부재)이, 나머지는 4월말에 들어온다. 유물관리부 김유식 학예연구관은 "3월말부터 조립을 시작해 5월말까지는 복원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익순 기자 fuf@buddhania.com

##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

### 디지털과 범성계

현대를 디지털 시대라고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뜻이다.

아날로그 신호란 정보를 자연 형태 그대로 저장, 처리하는데 비해서 디지털 신호란 신호를 '1'과 '0'이라는 두 개의 비트로 바꾸어서 표시하는 것이다. 음악 정보를 저장하는 LP 전축 판을 예를 들어보자. 악기소리 정보(펄스의 빠르거나 크기 등을 전축 판에 파진 홈에 저장하고, 이 홈을 바늘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홈에 저장된 모양이 바늘로 전달되게 한다. 파어진 홈의 모양이 음성정보인 것이다. 이에 반해서 디지털에서는 음성정보를 1과 0으로 변환한 후, CD에 1과 0만을 저장한다. 예를 들어, 큰 음성은 111로 작

진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기관의 과학적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불연속적인 신호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느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영화필름 하나 하나는 불연속이지만, 눈이 연속 동작으로 좌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분자의 파동에 의해서 내이에 존재하는 점도가 떨어지면, 청각세포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신경세포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청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전하를 가진 이온 역시 불연속적인 전하이다. 실제로 연속적으로 흐르는 듯이 보이는 전류 역시 불연속적 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의 집합일 뿐이다. TV방송이 끝나고 난 밤, 화면에서 보이는 불규칙한 모양은 불연속적인 전자 한 개 한 개가 임의로 방출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 과거·현재·미래 흐르는 모습은 아날로그

### 알고보면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습일뿐

은 음성인 경우 000로 표시하고 중간 음은 110, 001등으로 약속한 후, 저장된 1과 0의 조합을 약속대로 다시 변환해 주면, 아날로그 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정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3개 비트보다는 많은 비트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데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불연속적이다. LP판의 홈의 모양이 마모됨에 따라 정보가 소실되는 반면, 디지털에서는 1과 0만을 저장하므로 정보가 마모되지 않는 것이 디지털의 최대 강점 중의 하나다.

그러나 과연 자연에서 오는 정보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일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신호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것처럼 느껴

림사상을 가장 잘 표현한 계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범성계'는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던 의사대사가 지은 것이다. '범성계'에서 '무량원경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卽是無量劫)'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량없이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대상에 대한 자각이 사실은 한 생각일 뿐이며, 또한 한순간의 생각이 무한 결과 다르지 않다는 깨달은 자의 경지를 이와 같이 표현 것이다.

과거·현재·미래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사건들의 합(습일) 뿐이다. 과거의 사건들이 반민으로 다가오거나, 미래가 걱정될 때, 이를 인식하는 나 또한 불연속적인 생각의 집합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명성

### 3월 셋째 주(14~20일)

#### '세계 뇌 주간' 행사 다양

세계 뇌주간(3월 셋째 주)을 맞아 한국뇌학회·대한뇌기능장애학회·한국뇌신경과학회·한국인지과학회 공동으로 뇌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다양한 학술행사가 마련된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뇌(3월 15일·한서대) △뇌의 신비와 바이오리듬(3월 17일·포항공대) △뇌의 이해(3월 17일·서울대) △주제 언어, 뇌, 컴퓨터(3월 18일·충북대) △뇌의 이해(3월 18일·전북대병원) △뇌의 이해와 기능(3월 19일·KAIST) △한국인에게 빈발하는 뇌질환(3월 19일·서울대) △음악예술의 유뇌론적 탐색(3월 19일·한국예술종합학교) 등 8개 주제의 학술회의가 펼쳐진다. 학술회의에는 KAIST 이수영 교수, 서울의대 서유현 교수, KIST 생체과학 연구부 신희섭 박사 등 28인의 뇌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선다.

### 인터뷰

#### 아시아 문화재 및 고고학 세계적 권위자 로베르토 치알라 박사



"보존·복원 성공을 100% 확신하기 전에는 문화재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Oriental Art) 부관장이며 아시아 문화재 및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베르토 치알라 박사(사진)는 문화재 보존·복원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치알라 박사는 이탈리아 대사관대사 프란체스코 라우지·문화원(원장 루이지노 제킨) 및 공주대학교문화재보존과학연구소(소장 서만첸)등 공동 주최로 3월 8일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에서 '문화유산보존과 보존 기술'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 참가자 한국을 방문했다.

치알라 박사는 "이 같은 생각은 나 개인뿐 아니라 이탈리아 문화재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화재보존의 기본철학이다"고 설명하며 "만약 보존처리·복원을 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훗날 더욱 발전한 기술을 적용해 낫게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다.

#### "보존·복원 공동작업 원칙 지켜야"

문화재 보존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인간'과 '나쁜 복원자'라고 답했다. '나쁜 복원자'란 '보존·복원 작업에는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서 동등하게 공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에도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하거나,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존·복원 작업 참여자는 모두가 주인공이다"며 참여자의 역할의 가치는 높고낮음이 없음을 특히 강조했다.

전국에 산재해 관리가 여의치 않은 석조문화재 보존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자 치알라 부관장은 "정부의 관련 예산 확충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종교인들이 종교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벌일으로써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의 불교문화재를 불자들이 앞장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과 한국의 유물 대어 전시를 협의하고 있다는 치알라 부관장은 "이탈리아와 한국 상호간의 문화재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장점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익순 기자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 우리들의 친구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마음을 쉼속 자라나게 하는 이야기들을  
사용스님께서 들려주시니까요.

룸비니 동산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4시 45분,  
룸비니 동산에서 만나요!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89.9 Mhz / 대구 94.5 Mhz / 광주 89.7 Mhz / 전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

